



부처님의 견해로 '금강경'을 들여다보다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신용산 지음 | 한결을 더 펴냄 | 1만 2000원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두껍게 깔고 있다.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간직하면서도 대승 불교의 정신을 드러낸 경전. 그런 <금강경>이 선가의 입장에서만 풀이된다면 그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가 신용산(사진)씨가 '피로 쓰듯' 생산해 낸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는 <금강경> 풀이다. 이 책이 주목되는 것은 <금강경>을 대승의 사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을 확대하여 초기불교의 가르침에 천착하여 풀었다는 것이다. '아함부'의 경전들과 앙갚 따라나니까, 디가니까야 등의 초기경전들을 적극 활용했다. 물론 한역본 자료와 의상 스님의 글까지 인용하기도 했다. 한쪽의 측면에서만 바라본 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금강경>을 보고 있을까?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설한 <금강경>을 부처님의 견해로 읽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육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스테디셀러인 것이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읽어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밥을 먹어 보지 못한 사람이 밥맛을 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사람마다 밥맛을 다르게 표현하듯 <금강경>도 사람마다 다르게 읽고 이해한다. 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

그래서 <금강경>의 해설서가 즐비하다. 다른 경전들의 해설서도 있지만 유독 <금강경>은 해설자가 많다. '53가해'는 53명의 선지식들의 <금강경> 풀이다. 그 가운데 역사를 거치며 가장 빼어난 해설로 꼽혀 온 다섯 선지식의 풀이를 <금강경오가해>라고 하지 않는다. 5세기 이전의 무착과 세친 형제도 이 경을 주목했고 중국 역경사의 두 기둥으로 추앙 받는 구마라집과 현장도 비롯 해 보리유지, 진제, 급다, 의정 등도 <금강경> 번역의 대열에 동참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인도 중국 티베트 한국 등에서 <금강경>을 주석한 책은 8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금강경>은 시대를 관통하는 스테디셀러인 것이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에 들어가는 <금강경>은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관점에서 번역되고 주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금강경> 번역과 주해는 거의가 선(禪)의 안목에서 이루어졌다. 53가해도 선사들의 풀이여서 지극히 선가적 풀이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매우 활달하고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번번이 드러나는 주해였다. 또 아주 아름다운 계승의 형식을 빌려 '지지인심(直指人心)'의 자리를 펼쳐 보임으로 무한한 공(空)의 경지를 일깨우기도 한다. 그러나 선가의 <금강경> 풀이는 선수행의 바탕과 이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금강경>은 대승경전이다. 그러나 다른 경전과 달리 초기불교의 기본 가

초기불교 교리·대승정신 두루 조망한 새로운 해석 한역본의 '어투' 거의 안보여...핵심교리들 별도로 설명

한 인용하고 부처님이 경을 설할 당시의 상황이 가장 충실함으로써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육성을 느끼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한역본에서 접했던 '금강경식 어투' 등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만큼 읽기가 쉽다. 책의 중간중간에 초기불교의 핵심 교리들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별도로 자리하고 있어 초심자에게도 명확한 이해의 길을 안내한다.

부처님 일별 후 최소한 5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금강경>이란 경전에 시간을 초월해 부처님의 체취를 담아내는 작업. '부처님의 일대기를 제대로 써 보겠다'는 원력으로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탐독한 지은이의 정성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지은이는 <금강경>의 해설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음에도 다시 해설서를 쓴 이유에 대해 '불교의 수행과 공부

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무리 위대한 논사나 수승한 선사라 한들 어찌 부처님의 견해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며, 아무리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한들 후대에 성립된 경전이 어떻게 초기경전의 위상을 앞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 지은이의 질문이다. 글=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사진=박재환 기자 wanhollo@hanmail.net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7>

"누진 이상 아라한 모두 모여라"

가섭존자(迦葉尊者)께서는 그해 칠월십오일을 기(期)하여 왕사성(王舍城) 기사굴산(耆闍崛山) 필발라굴(畢鉢羅窟)에서 경전(經典)을 결집(結集)할 것이니 누진이상(漏盡以上)의 아라한(阿羅漢)은 모두 모여라라고 공고(公告)했다.

부처님께서 종종 설법하시던 기사굴산의 필발라굴을 결집(結集)장소(場所)로 정한 까닭은 대중이 다 알고 찾아오기 쉽게 하려는 뜻이요, 소집(召集)하는 대중을 누진이상으로 제한(制限)한 것은 결집의 권위를 격상(格上)시키기 위함이라니, 누진이란 견도혹(見道惑)과 수도혹(修道惑)의 번뇌를 다 끊은 아라한(阿羅漢)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때에도 지금과 같이 명예(名譽)로운 자리라면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無條件) 끼어드는 사람들이 있

정중법계(淸衆法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섭존자(迦葉尊者)의 공고(公告)에 따라 도처(到處)에서 수행하던 아라한들이 속속 모여들어 심사(審査)를 마치고 굴내(窟內)로 들어가 이가 이미 499명(名)에 이르렀고, 그 뒤를 이어 마지막으로 아난존자(阿難尊者)가 도착했다.

심사원(審査員)들은 아난의 세 가지 행적(行蹟)을 결격사유(缺格事由)로 들고 맹렬히 따졌으니, 마하파사파제부인(摩訶婆娑婆提夫人)의 출가(出家)를 허락하시도록 부처님께 권유(勸誘)하여 불법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 하나요, 마음장상(馬陰藏相)을 동녀(童女)들에게 보여주어 부처님의 존엄성(尊嚴性)을 실추(失墜)시킨 것이 들어요, 부처님께 석 달 동안 마맥(馬麥)을 대접하여 부처님의 복덕상(福德相)을 훼손(毀損)시킨 것이 셋이라 하였다.

가섭의 공고에 500비구 필발라굴 운집 아난, 7일간의 정진으로 대오 후 참여

었기 때문일까. 더구나 천하에서 가장 청정(淸淨)을 숭상하는 집단(集團)이라고 자부(自負)하는 고오타마(瞿曇)의 문하에서도 그렇듯 체면 없는 비구들의 탐입(탐入)을 격정(激憤)했을까.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사회(社會)와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비아냥거림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교단(敎團)집회(集會)의 한 격식(格式)이었다. 예(例)컨대 월레법회(月例法會)인 포살(布薩) 때에도 계사(戒師)는 등단(登壇)하자 먼저 시중(時衆)에게 묻는다. "이 대중은 청정(淸淨)한가. 오지 않은 비구들도 이 모임을 청정하다고 하던가. 그들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싶다(欲) 하던가" 하여 대중이 "그렇습니다" 하여야 설계(設戒)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청정(淸淨)하다 함은 대중이 계(戒)와 정(定)에 결손(缺損)이 없다는 말씀이요, 참여하고 싶다(欲) 함은 외부인(外部人)들이 이 모임을 어법(如法)한 집단으로 인정하는 기준이니, 내부적(內部的)으로 청정도(淸淨度)가 구축하고 외부적(外部的)으로 신인도(信認度)가 보태진다면 바야흐로

그러나 아난은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답변해나갔다. 첫째는 강보(糲糲)의 아가시질 어머니를 대신해서 길러 주신 이모(姨母)님의 간절한 청을 거절하시라 할 수 없었다. 둘째는 동녀(童女)들이 소문을 퍼뜨리기를 부처님에게서 그 물건이 애당초 없었다고 해서 그 소문이 먹혀드니 어쩔 수 없었다. 셋째는 전쟁(戰爭)이 나서 죽음이냐 마맥(馬麥)이나냐를 택해야 할 상황(狀況)이었다. 그때들 같은데 어찌 했었겠는가.

대중 이런 문답으로 심사위원(審査委員)들도 더 이상의 까다로운 질문(質問)은 멈췄으나 최종(最終) 가섭(迦葉)존자(尊者)의 검증(檢證)은 미유무부(未爲無漏) 부득입회(不得入會), 즉 아직 무루를 얻지 못했으니 회장(會場)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 아난은 어쩔 수 없이 마당 끝에 쭈그리고 앉아 불면불식(不眠不食) 칠일(七日) 만에 환연대오(豁然大悟)하고 자물쇠구멍을 통(通)해 굴내(窟內)로 들어가 극적(劇的)으로 청정해중(淸淨淨衆)의 일원(一員)이 된다.

본문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체세포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도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경허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적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의 병원에 치료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클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클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전자 불경 및 보리수 염주 세트

전자 불경은 천수경 및 발원문, 반야심경을 들을 수 있으며 전자침을 장착하여서 음향변질이 없고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음보살님 주위에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신비함이 묻어 납니다. 불경을 들으면서 소원성취도 이루어요.

보리수 108염주 및 단주는 보리수 나무 뿌리로 가공하여 자연 문향이 은은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현재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부모님 효도 상품 및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전자 불경 염주세트는 인터넷 옥션에서는 80,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전자불경 + 108염주 · 단주 > 50,000원

제품 문의 : 016-494-0772
예금주 농협 415092-51-040120 사)한국호국불교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사의 거목인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찰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전등록 전5권 / • 무문관 / • 법익법 / • 선부경 / • 금강경
- 신심명 / • 중도가 / • 반야심경 / •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환단고기 전5권 / • 법용선사심법 / • 선가귀감 / • 법성제
-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찻논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2권 / 세월을묵묵히 세심함을복사함 / 달다

법회 안내

-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